

## 광주·전남 총자산 72조8,743억원

### 행안부 공개 '지자체 재무보고서' ... 총부채는 2조8,622억원

광주·전남 지자체 자산·부채 현황		
광역시	총자산	총부채
분청	13,869,314	1,241,340
북구	872,881	24,712
광산구	787,300	20,151
서구	711,362	23,322
남구	606,433	20,473
북구	300,614	11,387
전남도	총자산	총부채
분청	17,823,447	673,774
여수	4,773,008	188,506
순천	4,132,728	58,140
목포	3,380,589	156,823
고흥	1,382,551	21,649
나주	1,420,783	43,433
해남	1,446,328	24,605
신안	1,419,693	59,167
완도	1,337,540	14,252
화순	1,343,193	21,292
광양	1,985,509	48,893
보성	1,689,502	4,375
영광	1,424,693	26,061
영암	1,960,184	19,002
장흥	1,467,773	4,443
무안	1,321,929	56,119
강진	1,049,123	22,175
진도	1,132,567	21,948
담양	1,094,244	25,188
장성	1,425,836	33,331
함평	953,504	27,062
곡성	1,065,806	2,929
구례	695,922	3,671

**신안군, 전국 군단위 지자체 부채 1위**

광주시에 전남도의 지난해 말 현재 각종 공유재산 등 총 자산은 72조8천743억, 총 부채는 2조8천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 등으로 모두 13조2천852억원의 총수입을 올리고 이 가운데 76.5%에 달하는 10조1천600여억원을 지출, 2조6천765억원 가량의 운영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자산·부채, 지난해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분석, 처음으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총자산은 17조1천479억원, 전남도는 55조7천264억원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의 부채는 각각 1조3천413억원, 1조5천208억원이었다.

또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모두 2조9천468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2조4천984억원을 사용해 4천483억원의 운영수익을 남겼다.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0조3천384억원의 수입 가운데 7조6천661억원을 쓰고 2조6천765억원을 남겼다.

광주시의 경우 자산 규모로는 북구가 8천7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7천873억원), 서구(7천113억원), 남구(6천644억원), 동구(3천694억원) 순이었다.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로 247억원이었으며, 광산구(200억원), 서구(233억원), 남구(204억원), 동구(113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4조7천730억원으로 자산 보유액이 가장 많았으며, 순천시(4조1천327억원), 목포시(3조3천805억원) 순이었다. 자산이 가장 적은 곳은 곡성군(1천6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 1위는 여수시 1천888억원이며, 목포시가 1천568억원으로 2위, 부채가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으로 36억원이었다.

특히 592억원의 부채를 기록한 신안군의 경우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지자체로 꼽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 자산은 844조9천701억원, 발행채권 등 총 부채는 총 자산의 3.6%인 30조2천11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시(115조5천745억원)의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도는 경기도(28조3천555억원), 시는 경기 성남시(17조2천755억원), 군은 충북 청원군(2조3천122억원),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4조6천779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가 올린 총 수익은 139조6천605억원, 총 비용은 총 수익의 79.1%인 110조5천696억원으로, 291억5천여원의 운영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보다 총 자산은 많지만 부채 규모가 커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재정운영 상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보다 의존수익이 많아 자립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안 교육감 "선서" 13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안순일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중학생 학교운영비 서울보다 많다

### 시교육청 국감, 급식비 못내는 학생 67% 늘어

광주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정부 표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부보다 많은 돈을 학교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 국감에서 "광주시내 20개 중학교를 무작위 추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입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 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 비율이 103.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학교 20곳의 학부모가 낸 학교운영지원비는 36억5천780만8천원인 반면 정부가 학생수와 교원수 등을 감안해 책정·부담한 표준교육비는 35억2천541만9천원이었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비 미납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751명으로 2006년 450명에 비해 301명(66.9%)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규모나 학생수가 비슷한 대전이나 대구가 각각 176명과 253명인 것에 비해 3~4배나 많은 수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전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두언(한나라당) 의원과 김준진(민주당) 의원은 전남대의 취업률이 타대학에 비해 낮은 이유와 전남대-여수대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 대학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기업 흑자도산, 반드시 막아야”

**李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13일 국내외 금융위기와 관련,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조급한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려줬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언급은 IMF 사태 당시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 일자리 상실과 고통 심화를 당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각자 눈앞의 이익을 쫓다 허둥대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해야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 애국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해외 소비를 줄이고 국내 소비를 늘려주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색으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 일자리 상실과 고통 심화를 당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금융시장 모처럼 웃었다

### 글로벌 공조 ... 환율 급락·코스피 급등

국내 금융시장이 모처럼 웃었다. 13일 금융시장은 세계 각국의 공조 움직임으로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주가는 급등하는 등 일단 '패닉(공황)' 상태에서 벗어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71.00원 급락한 1,238.00원으로 마감됐다. 이같은 하락폭은 지난 1998년 3월23일(82.00원)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공조 움직임에 따른 주가 급등과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도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47.06포인트(3.79%) 오른 1,288.53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17.89포인트(5.11%) 급등한 368.17로 장을 마쳐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코스닥시장은 오전 9시6분께, 코스피시장은 9시7분께 각각 5분간 프로그램 매수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편 유럽중앙은행들은 이날 자금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은행에 대한 무제한 달러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층  
062-271-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DYNASTY** 가을속으로 Go!Go! 국화 Festival

국화 Festival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층  
062-271-1111